

이라크 북부 초대형 유전개발권 확보

컨소시엄, 쿠르드 20억배럴 유전개발 정식계약 ... 사회기반시설 건설도

한국석유공사가 주도하는 국내기업 컨소시엄이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에서 추정 매장량 20억배럴의 초대형 유전 개발에 나선다.

특히, 국내 컨소시엄은 쿠르드 지역의 원유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현지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시행하기로 해 앞으로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와 석유공사는 6월25일 이라크 북부 아르빌에서 니체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KRG) 총리와 석유공사 김성훈 단장, 하라미 KRG 천연자원부 장관 등이 쿠르드 지역 8개 광구개발 및 지분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최근 공식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으로 확보한 광구는 2월 양측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보다 4개 광구 많고, 추정 매장량도 1.5배나 늘어난 것으로 한국이 해외유전 개발사업을 통해 확보한 광구 중 최대규모이다.

이에 따라 한국컨소시엄은 쿠르드 자치지역의 2개 탐사광구(원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 미개발 광구)의 생산물분배계약(PSC)에 따른 개발권과 함께 6개 탐사광구의 지분을 확보해 본격적인 유전개발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쿠시 타파와 바지안 등 총 8개 광구의 추정 매장량은 약 72억배럴로 한국컨소시엄이 확보한 원유량은 한국의 2년간 소비량에 상당하는 20억배럴로 3-4년 후 시험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한국컨소시엄이 원유 개발권을 확보하는 대신 국내기업들이 쿠르드 지역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참여하는 <패키지 딜> 형식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SOC계약도 아울러 체결했다.

계약으로 현대건설과 쌍용건설을 대표기업으로 코오롱건설, 두산건설, 극동건설, 안흥건설, UI ENC 등 국내 건설기업 7사가 참여한 SOC 컨소시엄은 전기공사(7억달러)와 상하수도(14억달러) 등 21억달러 규모의 SOC를 쿠르드 자치지역에 구축하게 된다.

한국은 SOC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 조달해 공사에 나선 후 계약으로 따낸 8개 유전 광구에서 원유가 본격 생산되면 건설비용을 충당할 방침이다.

KRG는 8개 유전 광구에서 당초 기대만큼 원유가 생산되지 않을 때를 대비하고 공사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광구 2곳에서 KRG가 얻는 원유의 일부를 담보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담보로 제공한 원유는 수천만배럴 수준으로 국제유가로 환산하면 건설비용 21억달러를 충분히 댈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최근 계약에 대한 이라크 중앙정부의 반대 등 일부 논란과 관련해 국제로펌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다 쿠르드 자치정부와 중앙정부간 협상도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지식경제부는 6월 말 이라크 중앙정부에 민관 대표단을 보내 KRG와 맺은 패키지 딜 형태의 계약을 이라크 전역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라크 중남부의 다른 유전 광구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25>